

# 봄부터 학폭 알렸는데...경찰은 전학만 권했다

‘진도 10대 2명 투신’ 학폭 연루 여부 부실 수사 논란

가족들 5월께 수사 의뢰 때 경미한 언어 폭력 판단한 듯  
“여중생이 남긴 메모, 유서 아니다” 단순 변사 처리 시도

진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녀 중학생 가운데 여중생의 유족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고 전에 여중생이 자필로 쓴 7장 짜리 편지 형식의 메모와 관련, 이를 유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경찰내부에서도 엇갈리면서 초동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중생 유족은 이에 앞서 지난 5월께 경찰에 학교폭력 수사를 요청하러 갔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경미한 사안이라며 전학을 권유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이 초기에 여중생의 메모를 유서가 아

닌 편지로 판단했지만, 유족측은 담임교사에게 남긴 메모에 학교 폭력이 언급된 점을 감안하면 메모는 유서가 확실하며, 학교 폭력에 대한 수사도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진도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 50분께 진도군 진도를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다니는 A(15)군과 B(15)양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됐다. A군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양의 유족측은 B양이 올해 초부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인 최근까지 같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동급생 6명에게 욕설을 들으며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

장했다.

B양은 지난 4월 2일 점심시간에 체육관에서 동급생 6명과 언쟁을 하면서 따돌림과 위협적인 표현을 들었다며 학교측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이후 진도교육지원청 조사결과 언어폭력만 있었다고 보고 화해 조정을 시도했지만, 6명중 일부가 “한자리에 있거만 했는데 가해자로 몰렸다”면서 자신들도 B양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식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진도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24일 학폭 심의위를 통해 가해 학생 6명과 B양에게 경미한 정도의 폭력이나 성방 폭력시 처벌하는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교내봉사·특별교육 이수·서면 사과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경찰의 미흡한 수사였다. 사고 발생 전인 지난 5월께 B양의 아버지는 경찰에 학교폭력수사를 의뢰하러 찾아갔지만, 경찰측은 전학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전학 준비까지 했지

만, 피해자인 B양이 왜 전학을 가느냐 친구들의 만류에 전학을 포기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B양과 B양의 아버지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약까지 복용했다고 한다. 유족 측은 경찰이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 폭력이라는 점에서 경미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사고 발생 이후 수사도 문제이다. 첫 수사를 맡은 진도경찰 형사과는 사고 당일 유족들을 만나고, 다음날인 지난 1일 B양의 집을 방문해 B양이 남긴 7장의 메모를 발견했다. 하지만 형사과는 7장의 메모를 유서로 보지않고 미발송된 편지로만 판단했다. 학교선생님·가족·친구들에게 전달할 편지였다는 것이다.

결국 B양이 남긴 메모를 유서로 볼 수 없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과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처리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2일 B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유족측의 주장이 계속되자 진도경찰 여성청소년과가 학교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여성청소년과 담당자는 B양이 남긴 메모의 사본을 형사과에서 전달받았고, 이를 편지형식의 유서로 봤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7장의 메모에는 학교폭력을 호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부분에서도 유족측의 주장은 달랐다. B양이 남긴 편지형식의 유서중 담임선생님께 남긴 편지에는 ‘선생님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학교폭력 때문에 더 친하게 지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진도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족이나 진도교육청의 고소장이 아직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의 발인이 끝나는 2일 이후 유족을 불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면서 “학교폭력 여부에 대한 탐문과 함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백운광장 ‘예술·환경 놀이터’ 된다

뉴딜사업 성공 위해 연말까지 버스킹·플리마켓 등 개최

백운광장 주변에서 플리마켓과 버스킹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광주 남구 백운광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백운광장 일대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을 쌓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버스킹과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주민 제안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2일 “백운광장 일대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 마을주민과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기업 등이 제안한 주민 제안사업 9가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주민 제안 사업은 8월 중순부터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사업 추진으로 백운광장 일대는 예술

과 환경,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놀이터 및 체험 장소로 변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오색빛협동조합에서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백운광장의 이미지를 패턴화하고, 공예를 기반으로 하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청년 놀이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직동 담쟁이 사랑회에서는 각각 소상공인을 위한 SNS 역량 강화 및 오프라인 마케팅을 위한 업체별 컨설팅을 선보이며, 그린웨이 메이커에서는 천연 성분을 활용한 비누와 세정제 등 예코 제품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백운광장 축제기획단과 꿈꾸는 부엉이 마을 학교에서는 각각 백양로 플리마켓을 비롯해 푸른길 빛축제 및 골목·예술놀이와 푸른길 주변 상가 조명등 제작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할짝 핀 연꽃의 유혹 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양산호수공원에 만개한 연꽃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북구,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돕는다

13개 업체에 65만원 상당 원스톱 지원

광주시 북구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판로 지원에 나섰다.

2일 북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위해 올해 신규시책으로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북구를 포함한 광주전남 중기청, 한전 KDN, 김대중컨벤션센터, 전남생산자협동조합, 셀러24, (주)인필 등 총 7개 기관·기업이 업무협약을 맺고 7월 모집공고를 거쳐 13개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상세페이지 제작, 온라인마켓 입점, 키워드 광고, 우수제품 라이브커머스 등 65만 원 상당의 원스톱 온라인 진출 지원을 받는다.

북구는 3일 북구청 2층상황실에서 13개 선정 업체와 함께 ‘판로개척 굿스타터 마팅 및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연극에서 ‘내 안의 나’ 만나세요”

광주 동구, ‘청년 삶 설계학교’ 참여자 모집...13일까지

광주시 동구는 연극 심리상담을 통해 청년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삶 설계학교-내 안의 나를 만나다’ 참여자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민선 7기 청년정책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삶 설계학교’는 동구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나’에 대한 탐색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 과정은 5주간에 걸쳐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Safe Zone 관계 형성 및 진단 ▲역할점검 ▲타인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되고 싶은 나’ 점검 ▲조력자와 방해자 탐색 등의 과정을 연극을 통해 ‘나’를 파악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모집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대상은 동구 거주 또는 동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대학에 재(휴)학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동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gu.kr)에서 신청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

## 임신중절수술 의사 상담 가능

임신부는 이달부터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심층적인 상담·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해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여성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전 또는 후에 진료료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에게서 20분 이상의 개별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에게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신축사옥 임대문의 환영

※임대업종: 한방병원, 병의원, 커피숍, 초밥전문점 등

##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大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 2020년 출자금 3.0% 배당

####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 담보대출 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 대출상담 환영

집단대출(중도금, 잔금) 관리형 토지신락 사업비 대출 전세(임차)자금 대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충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 입구)